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 - 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퇴직연금

- 동향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 이슈 : 금융지식이 창(窓)이다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4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고용시장 양적 지표 개선 지속

-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3.3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7.2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내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이 지속됨
 - 고용율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 5월 고용율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보다 0.1%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 5월 비경제활동인구도 1,557.9만명으로 지난 1월의 1,673.6만명보다 115.7만명 감소.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도 59.5%에서 62.5%로 높아짐
- 하지만, 신규 취업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20~30대는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금융 동향: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지원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상승

- 그리스 2차 총선(6/17)을 앞두고 유로존의 또다른 위협요인인 스페인 은행 부실을 방어하고자 유로존은 스페인에 약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예정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 25일 3.35%에서 6월 12일 현재 3.32%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도 5월 25일 1,182.0원에서 6월 12일 현재 1,170.5원으로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스페인 구제금융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상승 등으로 5월 25일 1,824.2에서 6월 12일 1,854.7로 30.5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5월25일	6월12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6.2	3.6	4.2	3.4	3.4	3.4	2.8	-	
	산업생산(%)	16.2	7.0	10.6	7.2	5.3	5.3	4.2	0.0	-
	소비자물가(%)	2.9	4.0	4.5	4.2	4.8	4.2	3.0	2.5	2.5
	실업률(%)	3.7	3.4	4.2	3.4	3.1	3.0	3.8	3.5	3.1
	경상수지(억달러)	282.1	276.5	26.1	54.9	69.0	126.7	26.3	17.8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72	3.62	3.80	3.68	3.60	3.41	3.47	3.35	3.32
	원/달러(원)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40.5	1,182.0	1,170.5
	코스피지수(P)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972.6	1,824.2	1,854.7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5월25일은 4월, 6월 12일자는 5월 수치임.

□ 경제 이슈: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 - 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에코부머(1979~1985년생)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세대로서 2010년 현재 약 510만 명의 거대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현재 만 27~33세로서 본격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통계 측면에서 향후 한국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 세대이다. 에코부머는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부모 세대 성장기 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1인당 GNI 시대에서 부모 세대의 성장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동차, 이동전화, 해외여행 등의 소비를 생활화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며,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부머는 부모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대학진학률의 경우 부모세대의 30%대 보다 2.5배 이상 높은 80% 수준이며,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 등을 통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마인드**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에코부머는 현재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학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니트(NEET)족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니트의 원인도 최근 단순히 '심'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그들의 취업의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최근 대학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이 크게 악화되자 그동안 빠르게 늘어난 학자금대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늘고 이에 따른 '신용유이자'가 급증하는 등 에코부머의 **신용 건전성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 사회진입 당시에 비해 크게 높아진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에코부머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에코부머의 사회진입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20대 후반의 미혼비율 급증으로 에코부머의 결혼이 지연되고 쉽게 가정을 이루기 어렵게 될 경우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시킬 수 있다. 또한 가장 활발한 소비단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주력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대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화되는 한편 부모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세대마저 궁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에코부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그들의 **일자리 마련**이다. 부모 세대와 다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에코부머이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여건과 이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 등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박덕배 전문연구위원(02-2072-6216, dbpark@hri.co.kr)

□ 동향: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 사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발표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
 -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
 -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11.12.31 현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노인인구(명)	5,109,644	5,270,214	5,436,969	5,642,297
신청자 수(명)	376,030	596,235	759,339	617,081
인정자 수(명)	214,480	286,907	315,994	324,412
노인 중 인정자 비율	4.2%	5.4%	5.8%	5.7%
이용자 수(명)	147,801	244,048	281,110	292,478
- 시설	56,370	70,374	92,556	105,178
- 재가	91,431	172,813	188,635	187,372
기관 수(개소)	11,941	21,701	23,698	23,566
- 시설	1,717	2,629	3,751	4,061
- 재가	10,224	19,072	19,947	19,505

- 복지부는 인고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이슈: 금융지식이 창(窓)이다

최근 한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득, 자산, 학력은 모두 경제적 행복과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이 각각 양(陽)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높은 학력은 좋은 직업과 높은 소득, 그리고 그만큼 높은 안정성과 발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적 무지(無智)에 의해 순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그동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비교적 순탄하기만 하였던 개인의 금융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신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식의 습득은 필수적이다.

○ 개인 금융생활 환경의 변화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금융생활은 일생 동안 그야 말로 평탄했음
 - 개인들은 성인이 되어 취업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도움으로 적당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기를 보냈음. 그러다가 남자의 경우 대개 군복무를 마치고 25~30세 정도에 사회로 진출한 이후 결혼을 하고, 여자는 드물게 직업을 가지기도 하지만 곧바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 당시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음. 그러면서 자신들의 2세를 양육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의 저축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했음. 그 당시에 저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
-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당시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가만히 돈을 맡겨 놓기만 해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가능했음

-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경우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커다란 돈이 되어 돌아왔음
- 당시 우리의 사회구조나 문화 풍토 하에서는 큰 잘못이 없다면 대개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 에서 정년까지 보장을 받았음
- 평균적으로 55~60세 전후에 은퇴를 했었고, 이후의 생활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음. 무엇보다도 자식이 노후생활의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하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쌓은 저축이나 퇴직금 등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노후 생활을 보낼 수도 있었음
-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평균수명도 그리 길지 않아 약 15년 가까운 노후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못다 사용한 자산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면서 일생을 마감하였음. 이토록 평생 비교적 순탄하기만 하였던 개인의 금융생활은 최근 환경이 급변하면서 무너지고 있음

① 소득발생 기간의 축소

- 최근 청년층의 사회진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부모 세대의 기대 속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음.
- 우리 사회가 높은 교육수준에 맞는 직업이 개발되지 못하면서 현재 젊은 세대들은 심각한 체감실업 문제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잡(job) 미스매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우리사회에도 Freeter 또는 NEET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Q> Freeter와 NEET족은 무엇인가요?

- 프리트(Freeter) : 자유(Free)와 아르바이트(Arbeiter)의 합성어로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장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삶을 즐기는 젊은 이에게 붙여진 신조어이다.
- NEET족 :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즉,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실업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그리고 지난 외환위기 이후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있음

- 이는 물론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근로자 스스로가 조기 퇴직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차원임
-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27.5%, '사업 부진·조업중단·직장휴업·폐업'19.2%, '가족을 돌보기 위해' 13.9% 순으로 나타남
-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 퇴직요인임을 감안할 때, '정년퇴직'에 의한 은퇴자 12%와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한 은퇴자 15%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과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소득발생 기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음.

② 빠른 고령화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의학발달에 따른 수명연장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상회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라고 함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2019년에 고령사회로의 진입 이후 불과 7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됨

<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추이 >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7%→20%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2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7
미국	1942	2013	2028	71	15

- 이러한 초고속 인구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것임
 - 높은 교육비용,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출산지연과 기피 현상 등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 2.08명, 2000년 1.47명, 2005년 1.08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등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음
 - 그동안 대표적인 저출산국으로 여겨졌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오히려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또한 국내 평균수명도 의학의 빠른 발달과 참살이(웰빙well-being) 트렌드의 영향으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음
- 보통 기대수명(출생 당시 생존할 기대여명)으로 측정되는 평균수명은 2010년 태어난 사람의 경우 1971년의 62.3세에서 18.5세 증가한 80.8세이며,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40년 후인 2050년에 태어나는 사람인 경우 93.3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수치는 평균 수치로서 만일 여러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훨씬 높은 수명을 가질 수 있음

③ 신용관리의 어려움

- 최근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 악화 속에서 청년층의 신용 건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 몇 년 전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이 실업 혹은 신용불량 상태가 된다는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까지 탄생했음
 -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이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개인 금융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함
 - 통상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을 독촉 받고, 당연히 연대보증을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등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됨

-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금리 비등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생존 위험에 직면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신용불량 문제가 대출금상환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비화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잠재성장률 악화 우려가 있음
- 청년층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특히 서민금융기관 및 대부업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함. 청년층의 신용불량은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증가함
-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인터넷 거래 증가, 첨단 통신기술과 신용카드의 융합 등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신용사회의 환경과 기회를 주는 한편 그만큼 신용 위험 노출이 큼
- 신용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한번 나빠지면 제 위치로 돌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철저한 신용관리가 필요함

④ 노후소득보장 문제

- 과거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 하에서는 자식이 노후생활의 보험 기능을 하였음
- 그러나 핵가족화의 진전, 개인주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무너지고 있음
- 그 결과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현상들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예컨대 전통적 유교국가인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 혹은 편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구성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 이전에 의한 소득이 가장 크며, 연금 등 공적 이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더군다나 빠른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내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렇다고 사적연금의 기능이 충분한 것도 아님
 - 2006년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여 선진국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과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현재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민간금융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여전히 미흡함. 국내 금융기관들이 각종 노후생활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층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연금 또는 일시불 형태로 받는 형태임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개인연금이 외면 받고 있는 상황임

Q>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은?

연금이란 노령사회를 대비해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으로서, 다른 금융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노후 보장제도는 연금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연금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1층에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다. 보통 회사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법적 제도를 정해 회사를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등도 노후 생활 보장의 개념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층에는 표준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 퇴직연금이 있으며, 연금의 최상층인 3층에는 개인이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이 놓인다. 물론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따로 자기들의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 3층 구조의 연금시스템 >			
3층	사적 연금	(개인연금) ○ 보험사(생명·손해), 은행, 투신사	
2층		(퇴직연금) ○ 퇴직금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 ○ 2011년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산 도입	
1층	공적 연금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장) 5인이상 상시 4인 이하 ('04.7.1 전면적용) ○ (지역) 사업장 가입 이외 ○ (임의) 사업장·지역 가입자 이외 등	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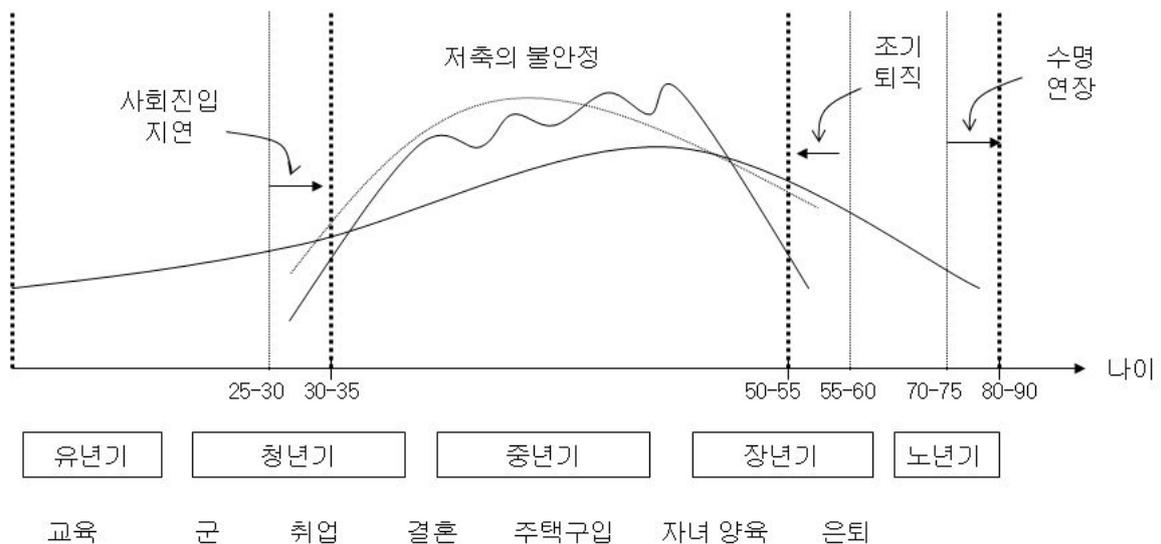
⑤ 자산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

-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 자체가 성숙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있음
- 현재 은행에 정기에금을 든 사람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 등을 고려한다면 이자율은 거의 제로 상태임
- 특히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령 이자생활자들은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극히 어려움
- 게다가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외국인 기관들이 수익을 내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전히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도 2000년 이후 급등하였지만 이제는 급락할 수도 있는 위험 자산이 되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1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가 심해지고 있음
- 이처럼 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과 운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금융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은 금리 이외의 다양한 투자 대상에 접근하기 어렵고, 자신의 자산을 건전하게 관리·운용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투자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장기 계획이 없고, 투자자의 기본 또는 투자에 대한 철학마저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금융지식 습득, 이젠 생활의 필수

-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금융생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
-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진입이 지연되고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소득발생 기간이 줄어들지만,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노후생활은 길어지고 있음
- 반면 저축 수단은 마땅치 않아져 이제 더 이상 평탄한 금융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 그렇다고 국가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자식이 지금 은퇴와 정년을 앞둔 사람들의 노후를 보살피는 것도 아님. 특히 자식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세대들의 후세는 부양의 의무에서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음

< 금융생활 환경 변화와 개인의 소득·소비 사이클 >



- 국내 금융생활 환경이 구조적으로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인들의 적응 능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대로 가다가는 개인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될 것은 분명함
-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천적인 생각 때문인지 긴장하는 법을 모르는 듯함
- 개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 적절한 생활 금융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교나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은 상당히 미흡하였음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초보적이고 그 내용 또한 충분하지 못함. 특히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에 젖어 있는 국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거의 낙제 수준임.
 -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의 현장에 있는 사회인들도 신문의 경제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
- 아무도 내가 가는 길을 대신 해주지 않음
- 누군가 물가까지는 인도할 수 있겠지만 물을 마시는 건 당신들의 몫임
 -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위해 팔을 걷고 바지춤을 걷어 올려야 하는 시대가 바로 목전에 있음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와 공부 그리고 철학도 필요함. 금융지식을 쌓는다는 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窓)을 하나 갖게 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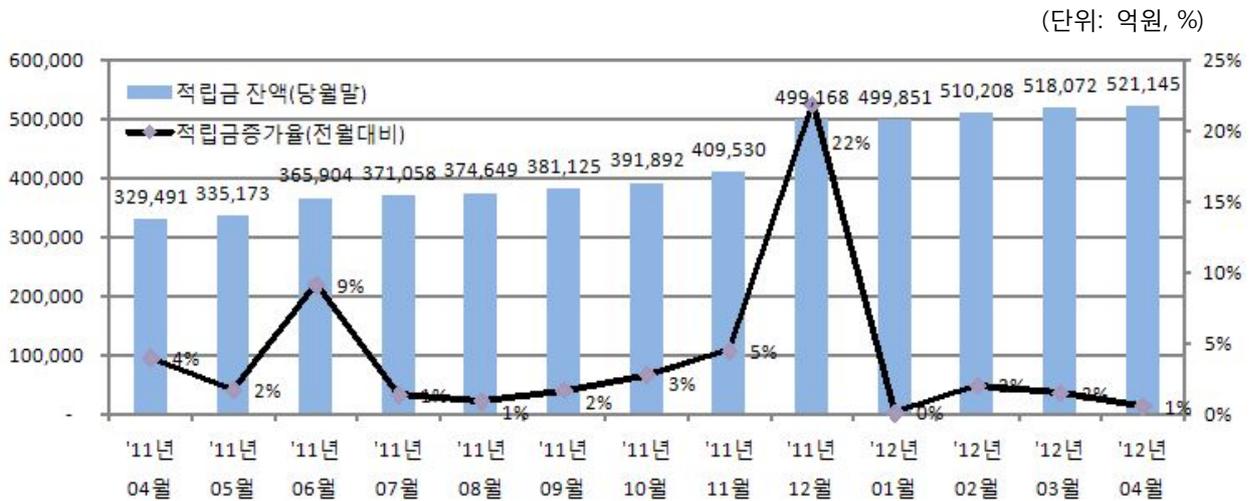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퇴직연금통계 (2012년 4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4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2 조 1,145 억원으로 전월말 (51 조 8,072 억원) 대비 0.6% (3,074 억원) 증가
- 퇴직급여지급액 증가분이 정기납입액 증가분을 초과하였으나, 제도전환 및 적립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소폭 증가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5.9%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57,268 개소로 전월말(152,910 개소) 대비 2.8%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4%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92,642	41,093	17,139	4,667	738	989	157,268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7.3	24.6	34.3	45.3	54.1	88.3	10.4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똑똑해지는 스마트폰에 대해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이유

휴대폰에 컴퓨터가 결합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기기 중독은 더 이상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나 길을 걸을 때 혹은 근무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때도 스마트기기는 항상 사람들의 걸을 지키고 있는 친구이자 조연자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무엇이든 찾으면 보여주고 무엇이든 물으면 대답해주는 스마트기기 앞에서 더 이상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에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스마트기기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낙관론과 학문적으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독일학을 가르치는 채드웰먼(Chad Welmon) 교수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접근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2년에 쓴 "Why Google isn't making us stupid or smart"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스마트기기에 대해 갖고 있는 공포와 비관론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대할 때마다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으로 새로운 매체가 된 책과 이후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그 이전까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만들고 읽고 소유하던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산업혁명까지 겹치면서 가히 출판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1770년과 1800년만 비교해도 그 증가율이 150%에 달할 정도였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책의 대중화에 대해 당시 계몽주의를 거친 지식인들이 크게 반기고 이를 권장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책이 출판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기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날이 늘어나는 디지털 정보에 압도당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들 것이 없는 심정이었다는 것이다.

1702년 철학자였던 토마시우스(Christian Thomasius)는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되고 이들이 쓴 책이 대량으로 출판되는 현상을 “일종의 전염병(a kind of epidemic)”으로 묘사했다. 이런 비판론자 속에는 출판시장의 확장으로 혜택을 받았던 것이 분명한 출판업자들도 있었다. 1795년 독일의 출판업자인 하인즈만(Georg Heinzman)은 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독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생각의 “노리게(pawn)”로 전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위대한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또한 이들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는 그답게 지극히 신중했지만 책의 대중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읽게 할지 모르지만 ‘대충 읽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불평했다고 한다.

책의 대중화에 대한 당시 최고 지식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책 때문에 지식이 대중화되었고 이 덕분에 지식이 가속도로 발전해 오늘날의 풍요를 인류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우려가 전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책의 너무 쉬운 발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그만큼 책을 쓰는 데 있어 생각을 거듭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들의 책은 더 큰 의미를 담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현재의 스마트기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투영한다면 스마트기기의 팽창을 우려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남용의 덧붙은 피해 가면서 얻고자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스마트기기의 시대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여전히 통한다.

**부는 거름과 같아 축적만 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나,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 톨스토이(1828~1910) : 러시아의 대문호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